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개념 연구 (II) : 자기가치감과 우울 및 비행간의 관계

곽금주

김근영

오산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자기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초기부터 일반적 자기가치감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간의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어린 아동에서 성인에 걸쳐 6개의 도구로 구성된 Harter의 자기지각 검사를 사용한 일련의 자기개념 연구 중 하나로, 검사내 한 영역인 '자기가치감'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일반 고등학교, 비행청소년군, 그리고 대학생 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Harter의 자기지각 검사와 자기상 검사, 그리고 우울과 비행을 측정한 자료가 분석되었다. 그 결과, 자기가치감의 효과는 일반 고등학생의 경우 특히 우울에 있어서 설명력이 강했으나 비행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연관이 없었다. 또한 비행청소년집단의 경우 자기가치감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자기지각 검사보다는 자기상 검사의 영역들이 우울에 더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James(1892)의 초기 연구 이후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자기개념'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자기개념은 개인의 행동, 태도 및 경험에 기능적 역할을 함으로서, 성격, 대처, 적응, 그리고 정신 건강 등 모든 심리적 측면에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Harter, 1990). 최근에는 이러한 자기개념의 역할 때문에 단순히 발달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임상, 성격이론, 그리고 사회학습이론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진들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발달심리학자들과 임상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척도 표준화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곽금주, 1995, 1996; 곽금

주 · 김근영, 1996; 이춘재, 1996; 이춘재 · 곽금주 1994).

그렇지만 자기개념 자체의 이론적 근거가 연구자들마다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자기개념을 구성하는 하위개념들의 구조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Keith & Bracken, 1996). Harter(1982, 1990)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특히 적응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일반적 자기가치감(general self-worth)'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원래 자기가치감이란 '자신이 한 개인으로서 전반적인 자기를 얼마만큼 좋아하는가'로 정의되는데, 자기개념 연구의 초기부터 '일반요인'과 '다중요인'의 논쟁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가 되었던

개념이다(Harter, 1996). Harter(1990)에 의하면 자기가치감은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부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이며, 실제로 임상적 청소년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자료도 제시되고 있다(Marold, Harter, & Whitesell, 1993).

자기가치감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크게 James(1892)와 Cooley(1902)의 초기이론에서 비롯된다. James에 의하면 유능감(competence)과 성취(achievement)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자기가치감을 구성하는 기본 요인이 된다. 보다 자세히 말한다면, 자신이 중요시하는 특정과제에서의 유능감이 개인의 전반적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필수적이 된다는 것이다. Cooley(1902)의 설명은 유능감 중심의 James의 이론과는 다르게 사회적 지지나 공정적인 대우 등 타인의 인정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 즉, 그의 looking-glass self 개념과 관련되어 자신이 중요하다고 보는 타인이 자신의 성취를 얼마나 인정하며 지지해 주는지가 자기가치감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Harter와 Connell(1984)은 이 두 가지 이론을 모두 통합하여 자기가치감이 유능감 및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서 형성되며, 개인의 다양한 동기와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구조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Harter (1982, 1985, 1988)는 광범위한 연령층에 있어 다양화되는 자기개념의 특성과 자기가치감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을 개발했다.

Harter(1982)는 일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용 지각된 능력 척도(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제작하였고, 다시 이를 기초로 하여 취학전 아동에서 성인까지의 광범위한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각 검사도구는 검사에 포함되는 차원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가지 부류(어린 아동용, 아동 및 청소년용, 성인용)로 검사도구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어린 아동 용 검사에는 취학전 아동용과 국민학교 1, 2학년용이,

그리고 나이든 아동용(7학년까지), 청소년용(8학년 이상), 그리고 대학생용과 일반 성인용의 모두 6가지 도구들이 현재 개발되어 있다. 그 하위영역을 보면 어린 아동용 지각된 능력과 사회적 수용 그림 검사(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는 일반적 능력과 사회적 수용의 2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취학전의 어린 아동용과 국민학교 1, 2학년용의 두가지가 있다. 그 위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용 자기지각 검사(Self-Preception Profile for Children)는 학업적 능력, 사회 수용성, 운동능력, 외모, 품행, 그리고 일반적 자기가치감의 여섯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용 검사(Self-Pre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에는 이 여섯가지에 이성관계, 우정, 직업능력등 세가지 차원이 더 포함된다. 이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독특한 삶의 영역을 구분하여 유능감이나 적절성을 판단해야 발달시기에 따라 변별적인 자기개념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용에는 좀더 차원들이 분화되어 도덕성, 지성, 훈육, 직업능력, 유머, 공급자로서의 적당성, 가사, 친밀한 관계, 사회성, 신체적 매력, 운동능력, 그리고 일반적 자기가치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로 구성 구인들이 더 첨가되어 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자기개념이 더욱 분화되어 감을 의미한다. 성인용은 또한 다시 대학생(Self-Perception Profile for College Students)용과 일반 성인용(Self-Perception Profile for Adults)으로 나뉘는데, 대학생용 검사의 하위차원들은 직업능력, 학업적 능력, 사회적 수용, 신체적 매력, 부모 관계, 우정, 지적 능력, 도덕성, 이성관계, 유머, 창의성, 운동능력, 자기가치감등 13개 차원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아동용과 청소년용에 속하는 일부 차원과 성인용에서의 일부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곽금주·김근영, 1996).

Harter의 자기지각검사가 다른 척도들에 비해 특히 자기가치감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유용한 이

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자기지각검사의 자기가치감 영역은 다른 하위척도와는 독립적으로 측정된다. 즉, 대체로 단일차원(혹은 위계차원) 이론을 배경으로 제작된 척도들이 자기가치감을 하위척도 문항의 조합으로 결정하는데 비해 자기지각검사에서는 이를 따로 분리하여 측정해 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이 중요시하는 성취의 영역이 다름으로써, 혹은 발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는 자기개념의 하위영역이 달라짐으로서 발생하는 측정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둘째로, Harter의 척도는 기존의 척도에 비해 자기가치감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가장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eith & Bracken, 1996). 실제로 너무나 많은 척도들이 이론적 배경에서 부실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자기지각검사의 개발은 자기개념연구 분야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기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론적으로 적응 및 정신건강과 관련이 깊은 자기가치감을 보다 타당하게 측정함으로서 임상장면에 있어 유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자기가치감이 실제 임상장면에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로 첫째는, 몇 가지 심리적 변인에 대해서는 자기개념자체가 그다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가치감과 정신병리간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의 결과는 자기가치감의 중요성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Prout & Prout, 1996). 비록 우울이나 불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가 있음이 제시되고 있으나 (Strauss, Forehand, Frame, & Smith, 1984; Teri, 1982), 청소년 비행(Himes-Chapman & Hansen, 1983)이나 공격성(Schneider & Leitenburg, 1989)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하다. 이는 자기가치감이 개인의 기분이나 동기에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행동에 영향을 줄 지라도 이 관계에 다른 변인들의 영향이 상당

수 개입됨을 시사한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자기지각검사 자체의 이론적 배경에서 기인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기지각검사는 James와 Cooley의 이론적 설명을 기초로 제작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개인의 능력위주의 자기개념을 주장한 학자들이다. 물론 개인의 성취와 능력이 우울감 등 정서적 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자기지각검사는 정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자기개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민감하지 못하다. 이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는데(곽금주·김근영, 1996), 비록 자기가치감은 자기지각검사 내 하위영역 중에서는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영역이었으나 자기상검사(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OSIQ-R; Offer, Ostrov, & Howard, 1992)에 비해 우울을 잘 설명해 내지 못했다.

본 연구는 Harter의 자기지각 척도를 이용한 본 연구자들의 일련적인 연구들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개념, 특히 자기가치감의 특성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 고등학생과 비행청소년 집단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학생집단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켜 그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기개념의 하위영역 중 부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자기가치감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비행과 우울을 어느정도 설명해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우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기상검사를 함께 측정하여 두 척도의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일반 고등학생집단으로서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 남, 여 학생 총 200명이 표집되었다. 비행집단으로는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되고 있는 청소년 140명이 조사대상자였다. 이외, 서울과 근교

남녀 대학생 738명이 대학생이 포함되어(곽금주·김근영, 1996),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피김자는 총 1078명이었으며(여자 529, 남자 534), 1968년생부터 1981년생까지의 연령이 포함되어 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Harter의 청소년용 자기지각 검사와, OSIQ를 청소년과 아동에게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SIQYA(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Peterso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 Jarcho, 1984)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에게는 Harter의 대학생용 자기지각검사와 Offer의 자기상검사를 실시한 연구자료(곽금주·김근영, 1996)를 다시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 고등학생과 보호관찰소 집단을 대상으로 비행척도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피험자들에게 우울척도(Revised CES-D-K)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도구들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기지각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지각 검사는 청소년용 자기지각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Harter, 1988)였다.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용 자기지각 검사(Self- Perception Profile for College Students; Neemann & Harter, 1986)를 실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개념의 영역들이 세분화되며, 두 척도의 하위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청소년용 검사: 9영역, 대학생용 검사 13영역)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 척도중 상호비교가 가능한 6가지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용 척도는 각 영역이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생용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자기가치감은 6문항). 각각의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학업적 능력(scholastic competence)

자신이 영리하고 학교 수업시간에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②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

동성의 친구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유용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자신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만족도 및 얼마나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신체매력(physical appearance)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외모나 몸매가 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지를 측정한다.

④ 우정(close friendship)

친구를 사귈 능력에 대해, 그리고 친구가 없어 소외감을 느끼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⑤ 운동능력(athletic competence)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⑥ 자기가치감(self-worth)

한 개인이 현재의 자신이 가치롭다고 생각하고 또 만족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 영역은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학업적 능력 .68, 사회적 수용 .69, 신체매력 .81, 우정 .80, 운동능력 .88, 그리고 자기가치감이 .79였다.

2) 자기상 검사

Offer의 자기상 검사는 Offer, Ostrov, Howard 그리고 Dolan(1992)이 정상 청소년들에 실시하기 위해 제작한 자기 보고형 척도로 1992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국내에서는 홍강의, 김봉석, 신민섭(1995)이 표준화하였다. OSIQ-R은 총 12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나를 가장 잘 나타내준다.'에서 '나를 전혀 나타내 주지 못한다.' 까지의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에 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다시 문항 수

로 나누어 그 평균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들은 12개의 하위 구성 척도, 즉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 가족 기능, 직업에 대한 태도, 자신감, 자기신뢰, 신체상, 성(性), 윤리적 가치, 이상주의로 구분된다. 10개의 중요한 하위 구성 척도 점수들을 합산하여 전체 자아상 (total self-image)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OSIQ의 경우 원래 청소년 용으로 제작된 것이긴 하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문항내용이 적절치 않으며(예를 들면 '성'에 관한 문항), 오히려 대학생 집단에 실시하는데 부리가 없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Peterson 등(1984)이 개정한 SIQY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여러 연구들에서(곽금주·문은영, 1993, 1995; 이춘재·곽금주, 1994) 사용된 척도이다. SIQYA 역시 OSIQ와 마찬가지로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비교가 가능한 다음의 4개 영역만을 분석하였다.

① 정서상태 (emotional tone)

우울, 불안, 긴장과 같은 정서상태와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이 적은 더 나은 정서상태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충동조절 (impulse control)

개인의 자아가 다양한 종류의 압력에 대처할 만큼 강한지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학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거나 우울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변별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된다.

③ 가족관계 (family relationship)

SIQYA에서는 가족관계로, OSIQ-R에서는 가족기능(family function)으로 명명된 영역이다. 가족내 관계의 질(quality)에 관한 청소년의 지각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일반적 가족관계, 부모관계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 자산과의 관계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신체상 (body image)

자신의 신체발달 상태에 대한 만족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및 변화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적응 정도를 평가한다. 낮은 척도점수는 사춘기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불편하게 느끼고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을 반영한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정서상태 .59, 충동조절 .75, 가족관계 .85, 그리고 신체상이 .68이었다.

3) 우울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depression Scale: Revised CES-D-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의 우울증상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보고하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임상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inson, Shaver, Wrightsman, 1991). Noh, Avison 및 Kasper (1991)가 이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캐나다의 한국교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4개의 문항을 추가한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 척도'를 중심으로 '역학연구-우울 척도: 청소년용'에 부가된 2개 문항을 더하여 총 26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다(곽금주·문은영, 1993, 1995).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0이다.

4) 비행

청소년의 숨은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곽금주·문은영(1993, 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48 문항 청소년용 비행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빈도를 고려한 등간척도의 수준에서 측정하기 위해, 반응을 '없다'에서 '많다'까지 1 점에서 5점을 부여 점수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비행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5로

상당히 높았다.

결과

자기지각 검사와 자기상 검사의 하위영역에 따른 집단별 평균값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 집단간에 일관적인 양상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으며, 특히 비행집단의 경우에도 신체상($F_{2,1076}=12.47, p<.001$)이나 운동능력($F_{2,1076}=8.55, p<.001$) 그리고 정서상태($F_{2,1076}=4.33, p<.05$)에 있어서는 다른 집단에 비

표 1. 자기지각 검사와 자기상 검사 하위영역에서의 집단 평균값

| | 일반고교집단 | 비행집단 | 일반대학생집단 | F |
|--------|--------------------|--------------------|-------------------|----------|
| 학업적 능력 | 2.34 ^{ab} | 2.23 ^b | 2.39 ^a | 5.55** |
| 사회적 수용 | 2.64 | 2.66 | 2.55 | 3.00 |
| 신체매력 | 2.22 ^a | 2.33 ^{ab} | 2.35 ^b | 4.24** |
| 우정 | 2.93 | 2.72 | 3.10 | 16.14*** |
| 운동능력 | 2.52 ^a | 2.86 | 2.59 ^a | 8.55*** |
| 자기가치감 | 2.39 | 2.49 | 2.40 | 1.40 |
| 정서상태 | 3.77 ^a | 3.96 | 3.77 ^a | 4.33* |
| 충동조절 | 3.51 ^a | 3.59 ^a | 3.74 | 10.89*** |
| 가족관계 | 4.51 | 4.39 | 4.42 | 1.45 |
| 신체상 | 3.52 | 3.86 ^a | 3.77 ^a | 12.47*** |

* $p<.05$, ** $p<.01$, *** $p<.001$

자기지각검사는 총 4점 만점, 자기상검사는 총 5점 만점
(윗첨자 알파벳은 Duncan검증시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집단)

표 2. 자기지각 검사와 자기상 검사의 하위영역간 상관

| | 학업적능력 | 사회적수용 | 신체매력 | 우정 | 운동능력 | 자기가치감 |
|-------|---------|---------|---------|---------|---------|---------|
| 비행 | -.14* | -.10 | -.05 | -.04 | .18*** | -.05 |
| 우울 | -.29*** | -.32*** | -.23*** | -.22*** | -.19*** | -.44*** |
| 정서상태 | .35*** | .46*** | .33*** | .35*** | .27*** | .53*** |
| 충동조절 | .32*** | .21*** | .27*** | .25*** | .19*** | .38*** |
| 가족관계 | .28*** | .21*** | .21*** | .24*** | .16*** | .34*** |
| 신체상 | .36*** | .34*** | .48*** | .25*** | .28*** | .54*** |
| 학업적능력 | - | .35*** | .31*** | .26*** | .23*** | .48*** |
| 사회적수용 | | - | .26*** | .46*** | .32*** | .54*** |
| 신체매력 | | | - | .19*** | .28*** | .46*** |
| 우정 | | | | - | .20*** | .40*** |
| 운동능력 | | | | | - | .28*** |
| 자기가치감 | | | | | | - |

* $p<.05$, ** $p<.01$, *** $p<.001$

해 높은 자기개념점수를 보았다.

자기지각 검사와 자기상 검사의 하위영역간 상관은 표 2에 세시되어 있다. 자기가치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표 2를 보면, 비행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다른 영역간의 상관이 매우 높은 것을

와 함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F_{2,334}=3.77, p<.05$), 자기가치감의 효과는 특히 일반고등학생집단이 비행집단에 비해 더 민감하게 영향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1).

이러한 경향성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도 보

표 2. 계 속

| | 비 행 | 우 울 | 정서상태 | 충동조절 | 가족관계 | 신체상 |
|------|-----|--------|---------|---------|---------|---------|
| 비 행 | - | .20*** | -.04 | -.17** | -.11* | .09 |
| 우 울 | | - | -.58*** | -.41*** | -.38*** | -.44*** |
| 정서상태 | | | - | .49*** | .45*** | .54*** |
| 충동조절 | | | | - | .43*** | .43*** |
| 가족관계 | | | | | - | .40*** |
| 신체상 | | | | | | -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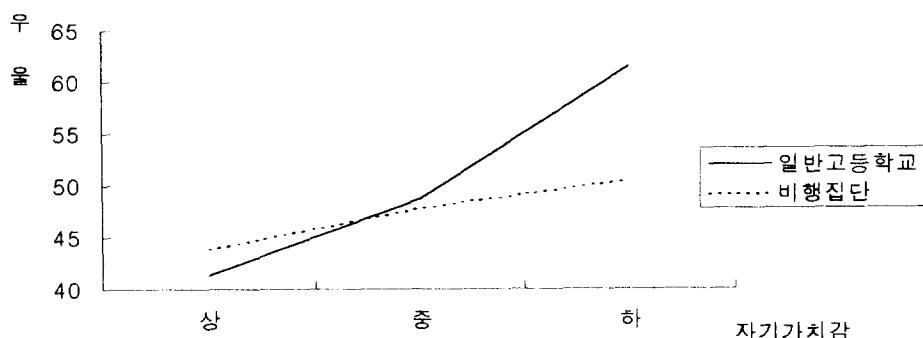


그림 1. 자기가치감 및 청소년집단에 따른 우울감

알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가치감의 효과는 비행보다는 특히 우울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페임자균을 자기가치감의 세가지 수준(상, 중, 하)과 두가지 청소년집단(일반고등학생, 비행집단)으로 나누어 우울간의 관련성을 Two-way ANOV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가치감 수준의 주효과

여진다. 자기지각 검사영역중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표 3), 자기가치감은 자기지각 검사 하위영역중에서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그러나 비행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일반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영향을 주지 않았던 '신체 매력'영역만이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F_{1,138}=6.02$, $p<.01$), 자기가치감을 비롯한 다른 영역들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 비행의 경우 자기지각검사의 4개 영역과 자기상 검사의 3개 영역이 각각 영향력 있는 변

표 3. 일반계 고등학생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자기지각검사의 영역

| 변인명 | Beta | Multiple R | R^2 | F |
|--------|------|------------|-------|----------|
| 자기가치감 | -.46 | .40 | .20 | 51.64*** |
| 학업적 능력 | -.27 | .52 | .27 | 36.36*** |
| 사회적 수용 | -.18 | .54 | .30 | 27.51*** |

*** $p<.001$

표 4. 우울에 영향을 주는 영역들

| 변인명 | Beta | Multiple R | R^2 | F |
|-------|------|------------|-------|-----------|
| 정서상태 | -.58 | .58 | .34 | 535.91*** |
| 신체상 | -.18 | .60 | .36 | 296.80*** |
| 충동조절 | -.13 | .61 | .38 | 207.96*** |
| 자기가치감 | -.12 | .62 | .39 | 132.02*** |
| 가족관계 | -.07 | .56 | .32 | 104.16*** |
| 우정 | .06 | .57 | .32 | 87.86*** |

*** $p<.001$

표 5. 비행에 영향을 주는 영역들

| 변인명 | Beta | Multiple R | R^2 | F |
|--------|------|------------|-------|----------|
| 충동조절 | -.18 | .18 | .03 | 14.14*** |
| 운동능력 | .17 | .24 | .06 | 13.17*** |
| 학업적 능력 | -.22 | .31 | .10 | 14.81*** |
| 사회적 수용 | -.15 | .33 | .11 | 12.67*** |
| 신체상 | .11 | .34 | .12 | 11.08*** |
| 자기가치감 | -.13 | .36 | .13 | 10.04*** |
| 가족관계 | -.10 | .37 | .14 | 9.22*** |

*** $p<.001$

한편, 자기상 검사와 자기지각검사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충돌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상 검사의 4영역이 모두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져, 정서적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상검사가 더 민감함을 시사하였다

인으로 밝혀져 두 검사의 영역들이 비교적 고르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에 있어서는 자기가치감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표 5).

논의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중 특히 정서적 측면의 적응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자기가치감'영역의 효과를 일반고등학생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등학생 집단의 차이를 더 명백히 보기위해 대학생 집단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척도로서 Harter의 자기지각 검사와 자기상검사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로 Harter의 척도는 자기가치감과 관련된 이론적 설명에 가장 적절히 근거하여 제작된 척도이기 때문이며(Keith & Bracken, 1996), 자기상검사는 특히 정서적 문제와 관련하여 민감한 척도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기가치감의 효과는 특히 우울에 있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일반 고등학생집단의 경우 자기가치감은 자기지각검사의 어떤 영역보다 우울을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Harter & Jackson, 1993; Marold, Harter, & Whitesell, 1983)과 일치한다. 그러나 자기상검사를 포함하여 우울과 관련된 변인들을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자기상 검사영역들의 설명력이 더 컸는데, 이는 본 저자들의 기존연구(곽금주·김근영, 1996)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James나 Cooley의 '성취에 대한 타인의 지지'라는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자기지각검사보다는 정서적, 병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자기상 검사가 더 설명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울에 주는 자기가치감의 효과는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과 비행청소년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비행집단에 있어 자기가치감은 우울을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능력, 신체상, 그리고 정서상태 등에 있어 오히려 비행집단의 자기개념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던 사실과 더불어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후속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져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운동능

력이나 신체상은 모두 '신체적 자아개념'에 속한다는 점과, 정서상태는 '공격성'이 아닌 '우울'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즉, 개인에 따라서 자신이 중요시하는 자아개념의 하위유형은 다를 수 있으며, 심리질환에 있어서도 특정영역에서의 취약성이 다른 영역이나 일반적인 자아개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행집단에 있어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자기가치감이 아닌 '신체매력'이라는 점과도 관련성이 있는데, 비록 자기가치감이 자기개념의 모든 하위영역을 포괄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있어 그들이 더 중요시 하는 영역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가치감은 비행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기존 연구에 있어서도 청소년 비행과 자기가치감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Hains, 1984). 또한 연구조사 당시 범률적인 문제에 개입되어 있는 비행청소년은 특히 상황적으로 자아개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Haddock & Sporakowski, 1982), 따라서 그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비록 비행과 자기개념의 관계를 탐색한 기존 연구들의 약 반 정도가 두 요인간에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지만, 그 관계는 우울에서와 같이 확실하거나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Harter와 Connell(1984)의 자기가치감에 대한 구조모형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정서적 적응이나 우울과 같은 변인은 자기가치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에 다른 행동문제의 경우는 간접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그러한 모형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앞으로 임상장면이나 상담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단 1100여명에 달하는 많은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히 자기가치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피험자 군

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자아개념의 전반적 발달패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가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중 비행위험군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개념 양상의 차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성차 및 연령차에 의한 발달양상도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될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개념 연구 (III)와 (IV)”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고려될 예상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기개념의 발달양상에 대한 더 완벽한 논의도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곽금주 (1995). KLSSA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연구*, 2(1), 29-43.
- 곽금주 (1996). 오산 전문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자기개념의 특성. *오산전문대학 산업기술연구소보*, 2, 139-153.
- 곽금주 · 김근영 (1996).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개념 연구 (I) : 대학생의 우울 및 자기상과 관련하여. *인간발달학회지*, 인쇄중.
- 곽금주 · 문은영 (1993).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곽금주 · 문은영 (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II): 청소년기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춘재 (1996).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 (II): 인문고와 특수목적 고등학생들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154-166.
- 이춘재 · 곽금주 (1994).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 (I): 연령에 따른 차이. *한*

- 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19-135.
- 홍강의, 김봉식, 신민섭(1995). 한국판 Offer 자아상 적도 표준화연구. 미발표 논문.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
- Haddock, B.L., & Sporakowski, M.J. (1982). Self-concept and family communication: A comparison of status and criminal offenders and non-offenders. *Journal of Offender Counseling, Services, and Rehabilitation*, 7, 61-74.
- Hains, A.A. (1984). Variables in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Moral judgment, role-taking, cognitive processes, and self-concept in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66-74.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Press.
- Harter, S. (1988).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Press.
- Harter, S. (1990). Processes underlying adolescent self-concept formation. In R. Montemayor, G.R. Adams, & T.P. Gullot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Transitional period*.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
- Harter, S. (1996). Historical roots of contemporary issues involving self-concept. In B.A. Bracken (Ed.), *Handbook of self-concept*. NY: John Wiley & Sons.

- Harter, S., & Connell, J.P. (1984).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achievement and children's self-perceptions of competence, control, and motivational orientation in the cognitive domain. In J. Nicholls (Ed.),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Greenwich, CT: JAI Press.
- Himes-Chapman, B.S., & Hansen, J.C. (1983). Family environments and self-concepts of delinquent and mentally ill adolescents. *Family Therapy, 10*, 289-298.
- James, W. (1892). *Psychology: The briefer course*. New York: Henry Holt.
- Keith, L.K., & Bracken, B.A. (1996). Self-concept instrumentation: A historical and evaluative review. In B.A. Bracken (Ed.), *Handbook of self-concept*. NY: John Wiley & Sons.
- Marold D. B., Harter, S., & Whitesell, N. R., (1993). *Dimensions of depression among an inpatient sample of adolescents with psychiatric diagnoses of depress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Denver.
- Neemann, J. & Harter, S. (1986).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ollege students*. Denver, CO: Univ. of Denver.
- Noh, S., Avison, W., & Kasper, V. (1991). Depression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4*, 84-91.
- Offer, D., Ostrov, E., Howard, K. I., & Dolan, S. (1992). *Self-Image Questionnaire Revised*. Los Angeles, CA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Petersen, A. C., Schulenberg, J. E., Abramowitz, R. H., Offer, D., & Jarcho, H. D. (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SIQY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2), 93-111.
- Prout, H.T., & Prout, S.M. (1996). Global self-concept and its relationship to stressful life conditions. n B.A. Bracken (Ed.), *Handbook of self-concept*. NY: John Wiley & Sons.
- Robinson, J.P., Shaver, P.R., & Wrightsman, L.S. (1991).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chneider, M.J., & Leitenburg, H. (1989). A comparison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s self-esteem, optimism and pessimism and causal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 133-144.
- Strauss, C.C., Forehand, R.L., Frame, C., & Smith, K. (1984).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extreme scores on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3*, 227-231.
- Teri, L. (1982). Depression in adolescence: Its relationship to assertion and various aspects of self-imag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1*, 101-106.

韓國心理學會誌：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997. Vol. 10, No. 1, 15-26.

Self-Concept Development (II) :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eral self-worth, depression, and delinquency

Kwak, Keum-Joo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Osan College

Kim, Geunyou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ince James' pioneering study of self-concept, the effect of general self-worth has been constantly argued among professionals. The present study, as a research series using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ocused primarily on the effects of the general self-worth on depression and delinquency. 1078 high school students, adolescent delinquents, and college students were administered with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Self-Image Questionnaire, and depression and delinquency scale. results indicated that the general self-worth had strong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in case of normal high school students. However, the effect of general self-worth was not significant both in depression of delinquent subjects and in delinquency of all subjects. Moreover, the effect of the components of Self-Perception Profile on depression was generally weaker than that of Self-Image Questionnaire.